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 경험과 대학생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의 매개효과*

박 지 혜 설 경 옥[†] 김 지 혜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생애사 이론과 획득된 준비 모델을 근거로 아동기 환경, 성격(충동성), 인지(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변인의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생애사 이론에 따라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이 불확실한 환경으로 작용하여 빠른 생애사 전략인 충동적 성격발달에 기여하고 획득된 준비 모델에 따라 충동성이라는 성격변인이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의 발달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문제음주를 예측할 것이라 가정했다. 문제음주에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성차를 확인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고 성차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은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이 두 변인을 순차적으로 매개했다. 다집단 분석결과 남녀 집단의 매개모형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남자 대학생에게서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과 충동성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알코올 중독 상담 및 문제 음주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모양육행동, 문제음주, 대학생, 생애사 이론, 획득된 준비 모델

* 본 논문은 박지혜의 석사학위 논문(2015년도)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8, E-mail : koseol@ewha.ac.kr

음주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각종 대학 행사에서 음주가 권장되는 문화(정준영, 2010)를 경험하는 대학생은 다양한 음주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골절과 같은 신체 사고나 사망 등의 건강문제, 성폭행, 음주운전, 기물파손 등의 법적문제(김광기, 장승욱, 제갈정, 2006), 결석, 성적저하와 같은 학업문제(Hingson, Heeren, Zakocs, Kopstein, & Wechsler, 2002),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 및 대인관계 문제(Wesch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o, 1994)와 관련이 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알코올 사용장애를 예측하기도 한다(O'Neill, Parra, & Sher, 2001).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음주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임상적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음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Institute of Medicine, 1990). 대학생 문제음주는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성격적 요인, 인지적 요인으로 설명된다(강철중, 김성곤, 김현경, 황인복, 변원탄, 2006). 본 연구는 생애사 이론(Stearns, 1992)과 획득된 준비모델(Smith & Anderson, 2001)의 이론을 근거로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부정적 양육경험의 환경적 변인과 이후 이들의 성격 발달(충동성) 그리고 인지발달(대학생활에서의 음주 중요성 인식)과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아동기 양육경험

진화생물학적 관점에 근거한 생애사 이론(life history theory)에 따르면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적응전략을 사용하도록 진화한다(Stearns, 1992). 모든 유기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즉각적인 번식의 성공을 증진시키는 생식적 노력(reproductive effort)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을 '빠른 전략'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신체적 노력(somatic effort)을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을 '느린 전략'이라고 한다(Ellis, 2004; Kaplan & Gangestad, 2005).

생애사 이론에 따르면 초기 양육 환경이 개인의 생애사 전략 발달에 영향을 준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미래를 부정적이며 불확실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빠른 생애사 전략을 발달시킨다(Ellis, Figueredo, Brumbach, & Schlomer, 2009). 불확실한 환경에서 개인은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재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선호한다. 이러한 빠른 전략은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갖고,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Chisholm, 1993), 낮은 만족지연능력(Mittal & Griskevicius, 2014), 충동적 행동 양식과, 빈번한 알코올 사용과 같이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이익과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Brumbach, Figueredo, & Ellis, 2009).

반면, 물리적, 심리적 자원이 많거나 예측이 가능한 조건의 환경에서는 지연시킨 만족 또는 이익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은 느린 전략을 선택한다. 느린 전략을 선택한 개인은 더 적은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많은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사회적 규범을 보다 잘 준수한다(Brumbach, Figueredo, & Ellis, 2009; Roff, 199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 부모양육이 발달과정에서 불확실한 환경으로 작용하여 개인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즉각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빠른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문제음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제적 결핍, 불안정한 애착, 부정적인 양육, 가족 내 높은 스트레스는 아동기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다(Bereczkei & Csanaky, 2001; Chen & Miller, 2012). 초기 양육 경험은 아동기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Belsky, Houts, & Fearon, 2010). 예를 들면,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경험이 많았을수록 여대생의 성적 파트너가 더 많았는데, 이는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으로 작용하여 여대생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성장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자손의 번식 가능성을 높이는 빠른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Chisholm, 1999).

빠른 전략은 장기적 결과보단 즉각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여 위험감수성향과 중독과 정적 상관이 있다(Nesse, 2002). 미국 청소년 패널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경제적 빈곤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18-26세 성인의 높은 충동성, 높은 범죄율과 알코올 사용을 예측했다(Brumbach, Figueredo, & Ellis, 2009).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충동성은 알코올 사용의 증가와 알코올 관련 문제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성격 변인이다(양모현, 류준범, 이경순, 2014). 대학생 대상

연구에 의하면 일반 음주자 집단에 비해서 위험음주자 집단은 충동성이 더 높고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보상민감성이 높았다(Lyvers, Duff, Basch, & Edwards, 2012).

불확실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즉각적 이익추구를 선호하는 충동적 성격특성이 빠른전략으로서 발달되었을 수 있다(Chisholm, 1999; Daly & Wilson, 2005). 충동성은 위험감수 경향성과 무계획성을 특징으로 하며(Eysenck & Eysenck, 1978) 빠르게 인지적으로 결정 내리고 행동의 장기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민함이 부족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Patton, Stanford, & Barratt, 1995). 부유한 아동기를 보낸 성인과 가난한 아동기를 보낸 성인을 비교했을 때 불확실한 환경의 지표인 가난한 아동기를 보낸 개인이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더 없다고 지각하며 만족지연 능력은 낮고 충동성은 높게 나타났다(Griskevicius et al., 2013; Mittal & Griskevicius, 201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결과, 아동이 부모양육을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 관계를 충동성, 공격성이 부분매개하였다(임정아, 김명식, 2018).

획득된 준비 모델(acquired preparedness model)에 따르면 '획득된 준비성'이란 개인의 성격에 따라 특정 학습 경험에 차별적으로 준비된다는 것이다. 부정적 부모양육으로 인해 높은 충동성이 발달된 사람은 충동성이 낮은 사람보다 음주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발달시키게 되며, 그 결과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Barnow et al.,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충동성이 문제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충동성이라는

성격변인이 음주관련 인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음주 증가를 예측하기도 한다(박선영, 2009; Anderson, Smith, & Fischer, 2003; McCarthy, Kroll, & Smith, 2001).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을 통해 불확실성을 경험한 개인이 충동성이라는 빠른 전략을 선택하고 충동적 성격이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문제음주를 더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음주가 대학생활에서 더 중요하고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할수록 학생들은 음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문제음주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음주를 대학경험의 필수요소로 인식할수록 술을 마시고자 하는 동기와 음주문제 수준이 높았고(양난미, 2015), 실제로 음주량이 증가하고 폭음의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sberg et al., 2010).

성차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술을 더 자주, 많이 마시며 많은 음주문제를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다(서경현, 2003; 양난미, 2010).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의 차이가 크며(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이로 인하여 음주행동에 대한 기대도 남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음주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는 남성이 보다 허용적인 음주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성의 더 큰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정슬기,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문제음주 정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부정적 부모양육과 충동성의 관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모의 양육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모의 긍정적 양육과 여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상관이 없었던 반면, 모의 긍정적 양육과 남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충동성 감소와 모의 긍정적 양육의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김영옥, 홍지영, 김세루, 김권일, 2008). 부모애착이 남자 청소년의 비행 심각도를 감소시킨 반면에 또래애착과 학교애착은 여자청소년들의 비행 심각도를 감소시켰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남성의 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의미한다(Anderson, Holmes, & Ostresh, 1999).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애착 및 양육의 영향이 여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등(강지연, 오경자, 2011) 부모양육과 자녀의 성격 형성 및 심리적응 관계에서 성차는 발견되었으나 그 방향성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과 충동성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예측은 하지 않았다.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생애사 이론에 기반하여 아동기에 비수용적이고 거부적인 부정적 부모양육을 경험했음수록 충동성과 문제음주가 더욱 증가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충동성은 문제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성격변인인 충동성이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발달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획득된 준비 모델에 기반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은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중단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지되어 왔다(Clark, Yang, McClernon, & Fuemmeler, 2015; Schofield et al, 2017).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부모가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며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을 더 할수록 대학생의 폭음의 빈도와 음주량은 감소하였으며(Abar, 2012) 국내에서도 언어적/정서적 학대, 부모의 별거 등을 포함하는 성장기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대학생 문제음주를 예측하였다(정슬기, 2008). 따라서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와의 직접적인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부정적 부모 양육과 문제음주 사이의 간접적 관계를 지지하는 다수의 매개연구가 존재한다(김한나, 최윤신, 2015; 이은숙, 봉은주, 2015).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적을수록 대학생의 알코올 남용 정도가 더 심했고 우울이 이를 매개했다(Patock-Peckham & Mprgan-Lopez, 2007). 부모양육방식과 자녀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충동성이 완전매개하기도 하였다(Patock-Peckham & Mprgan-Lopez,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이 문제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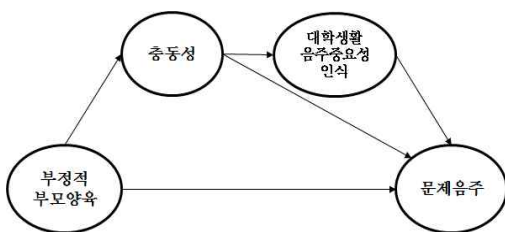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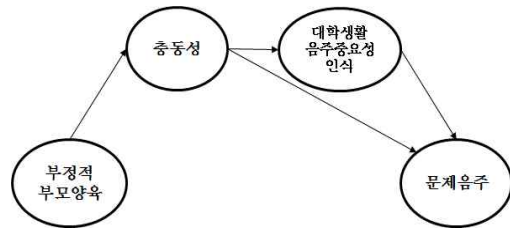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을 매개로 예측하는 연구 모형과(그림 1),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효과를 가정하지 않은 경쟁모형(그림 2)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가 연합된 연극동아리를 통한 온라인 모집과 서울 소재 여자 대학교 게시판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7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하고 36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2세($SD=2.31$)였고, 이 중 남자는 139명(38.1%), 여자는 226명(61.9%)이었다. 모두 대학 재학중이었고, 1학년은 23명(6.4%), 2학년은 97명(26.9%), 3학년은 98명(27.2%), 4학년 이상은 142명(39.4%), 무응답은 5명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

지각된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Rohner(1981)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로 김언주(1988)에 의해 번안되고 권순명(1993)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행동의 척도는 수용(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셨다)에 관한 15문항과 거부(예: 나를 창피하게 하거나 비웃기도 하셨다)에 관한 1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적 양육행동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의 양육행동을 비애정적이고 거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비수용적 양육이 .94이고 거부적 양육은 .84이었다.

문제음주

문제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을 대한보건협회(2012)에서 번안한 AUDIT-K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주정도(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3문항, 알코올의존(예: 지난 1년간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3문항, 그리고 유해음주(예: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4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8번 문항은 5점 척도(0-4점), 9-10번 문항은 3점 척도(0, 2, 4점)로 점수범위는 0-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정도가 심각해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음주정도가 .92이고 알코올 의존은 .94, 유해음주는 .92이었다.

충동성

본 연구에서는 Barratt(1959)이 개발한 Barratt 충동성 검사(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IS-11)를 허심양, 오주용, 김지혜(2012)가 타당화한 총 30문항의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BIS-11)를 사용했다. Likert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1점부터 4점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는 인지충동성(예: 나는 집중을 잘 못 한다) 8문항, 운동충동성(예: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한다) 11문항, 무계획충동성(예: 나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관심이 있다) 11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인지충동성은 .92, 운동충동성은 .94, 무계획충동성은 .92이었다.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본 연구에서는 양난미(2015)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대학생활에서 음주의 중요성 인식을 묻는 필수요소(예: 술과 대학생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5문항, 관계요소(예: 술은 대학생활에서 추억을 제공해준다) 4문항, 정서요소(예: 우울할 때나 외로울 때 술은 위로가 된다)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음주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

당도(Cronbach's α)는 필수요소는 .90이고, 관계요소는 .83, 정서요소는 .81이었다.

자료 분석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이상치 및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및 간명도와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GFI, TLI, CFI, RMSEA 모형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GFI는 .90 이상이 권장되는 수용수준이고 TLI와 CFI도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Bentler, 1990). RMSEA는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내고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했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Shrout & Bolger, 2002). 하지만 AMOS의 다중매개모형은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결과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중매개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배병렬, 2011).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댓값은 2 이하, 첨도의 절댓값은 7 이하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WHO에서 제시하는 절단점에 따라 문제음주자를 분류하였을 때, 8점 이상의 문제음주자는 총 212명(남 103명, 여 109명)으로 연구참여자의 과반수 이상(58.2%)을 차지했다. 문제음주자 중 간단한 조언이 필요한 저위험음주자(8-15점)는 127명이었고 조언과 상담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중위험음주자(16-19점)는 44명, 알코올관련장애 진단평가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음주자(20-40점)는 41명이었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지각된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과 대학생할 음주 중요성 인식 및 문제음주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부정적 부모양육은 충동성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이($r=.29, p<.01$), 충동성은 대학생할 음주 중요성 인식($r=.20, p<.01$)과 문제음주($r=.21, p<.01$)와 각각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대학생할 음주 중요성 인식은 문제음주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6, p<.01$).

연구모형 검증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관계를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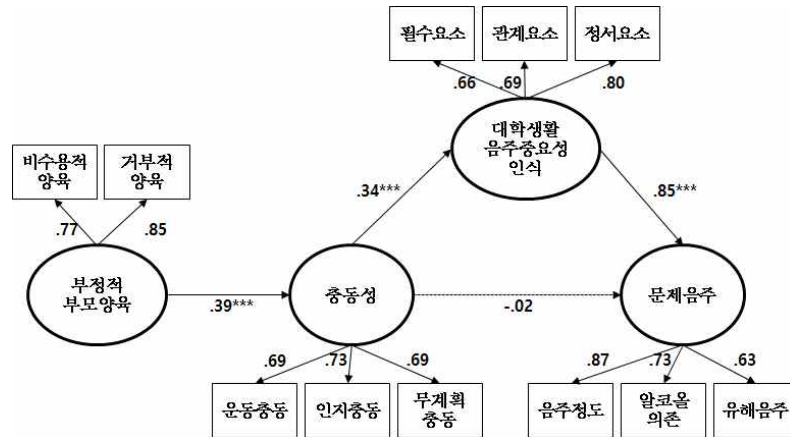
	1	1-1	1-2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4-3
1. 부정적양육	1														
1-1. 비수용적양육	.94**	1													
1-2. 거부적양육	.87**	.65**	1												
2. 충동성	.29**	.27**	.25**	1											
2-1. 인지충동	.34**	.31**	.32**	.78**	1										
2-2. 운동충동	.15*	.09	.19**	.81**	.49**	1									
2-3. 무계획충동	.25**	.27**	.15**	.84**	.47**	.50**	1								
3.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05	-.07	.01	.20**	.09	.31**	.09	1							
3-1. 필수요소	-.09	-.12*	-.02	.14*	.03	.27**	.04	.92**	1						
3-2. 관계요소	-.05	-.08	.03	.12*	.06	.23**	.02	.89**	.75**	1					
3-3. 정서요소	.05	.05	.05	.27**	.16**	.31**	.19**	.76**	.51**	.55**	1				
4. 문제음주	.08	.06	.10	.21**	.12*	.26**	.15**	.56**	.46**	.47**	.55**	1			
4-1. 음주정도	-.03	-.05	.01	.18**	.07	.25**	.11*	.60**	.51**	.50**	.57**	.84**	1		
4-2. 알코올의존	.08	.07	.09	.17**	.13*	.20**	.11	.51**	.43**	.43**	.48**	.87**	.62**	1	
4-3. 유해음주	.14*	.11*	.14*	.20**	.13*	.21**	.18**	.38**	.27**	.32**	.41**	.89**	.56**	.72**	1
평균	55.77	30.71	25.15	65.56	16.88	23.05	25.69	38.48	15.72	14.23	8.63	10.44	6.12	1.72	2.63
표준편차	14.74	9.62	6.50	9.31	3.35	3.65	4.43	9.29	4.63	3.11	3.04	7.47	3.02	2.16	3.47
왜도	.86	.39	.14	.02	.13	.25	.03	-.36	-.29	-.64	-.18	.92	-.23	1.49	1.67
첨도	1.10	-.28	3.87	-.18	-.45	-.09	-.31	.25	-.24	.87	-.60	.70	-.76	2.34	2.41

**p < .01, *p < .05

가정하는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chi^2(37, N=365)=134.90(p < .001)$, TLI는 .915, CFI는 .943, GFI는 .933, RMSEA는 .085(90% 신뢰구간 =.070~.101)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경쟁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chi^2(38, N=365)=136.49(p < .001)$, TLI는 .917, CFI는 .943, GFI는 .932, RMSEA는 .084(90% 신뢰구간 =.069~.100)로 모두 모형의 적합도 기준에 충족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는 $\Delta\chi^2(1, N=365)=1.59,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적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Abar, 2012)도 존재하지만 간접적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이은숙, 봉은주, 2015; Patock-Peckham & Mprgan-Lopez, 2006)가 더 많고, 본 연구에서 역시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지지되고 통계적으로도 좀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충동성이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했다.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와 경로계수는 그림 3과 같다.



주. *** $p < .001$.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
그림 3.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변수들 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원자료($N=365$)로부터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 크기와 95% 신뢰구간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부정적 부모양육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사이에서 충동성이 갖는 간접효과($\beta = .13$), 충동성과 문제음주 사이에서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이 갖는 간접효과($\beta = .29$),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을 통해 문제음주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을 통해 문제음주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10$)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 간에 이중매개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배병렬, 2011). 그 결과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을 통해 문제음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

표 2.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부정적 부모양육	→ 충동성 →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00	.13**	.03	.10
충동성	→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 문제음주	-.02	.29**	.15	.65
부정적 부모양육	→ 충동성 → 문제음주				
부정적 부모양육	→ 충동성 →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 문제음주	.00	.10**	.02	.07

주. ** $p < .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 경로계수임.

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문제음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주요변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결과

연구 모형의 성차를 검증하기 위한 다집단 분석전에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과 문제음주에서 남녀의 평균 차이가 유의($p < .001$)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음주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각된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경험($t = -1.28, p > .05$)과 충동성($t = -1.95, p > .05$)에서는 남녀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형태동일성 검증

남녀 대학생의 양육경험, 충동성,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문제음주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남녀 집단의

기저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여자집단의 모형적합도는 $\chi^2(38, N=226) = 101.150, TLI = .915, CFI = .941, RMSEA = .086$, 남자집단의 모형적합도는 $\chi^2(38, N=139) = 67.144, TLI = .930, CFI = .952, RMSEA = .075$ 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모형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을 비교하였다.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 χ^2 값 차이에 의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차이 검증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지수인 TLI와 RMSEA 지수를 확인하였다.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기저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지 않는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이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미미하였기 때문에($\Delta TLI = -.004, \Delta RMSEA = .001$) 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

표 3.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163.303	76	.920	.945	.058
측정동일성	189.527	83	.916	.937	.059
구조동일성	197.003	87	.917	.934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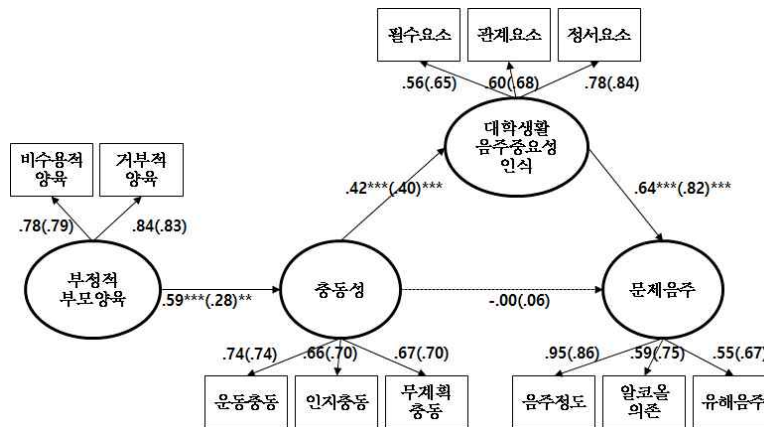
구조동일성 검증

남녀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모형 내에 존재하는 4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4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함으로써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Delta\chi^2(4, N=365)=7.476, \Delta TLI =.001, \Delta CFI=-.003, \Delta RMSEA=0$). 다만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1, N=365)=5.589, p<.05$).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남녀집단 간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충동성에서 대학생할 음주 중요성 인식으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남자 대학생이 .42($p<.001$), 여자대학생이 .40($p<.001$)이었고 대학생할 음주 중요성 인식에서 문제음주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남자 대학생이 .64($p<.001$), 여자 대학생이

.82($p<.001$)로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부모양육에서 충동성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는 남성이 .59($p<.001$), 여성이 .28($p<.01$)로 여자 대학생 집단에 비해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부정적 부모양육에서 충동성에 대한 경로를 제외하고는 남녀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은 그림 4에 제시했다.

논 의

아동기 부모의 부정적 양육은 대학생과 같은 후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의 문제음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Barnow, Schuckit, Lucht, Ulrich, & Freyberger, 2002)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이 대학생 문제음주로 이어지는 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많지



주. *** $p<.001$, ** $p<.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괄호 안 계수는 여자)

그림 4.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않다. 본 연구는 생애사 이론과 획득된 준비 모델을 근거로 부정적 부모양육과 대학생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성격 변인으로는 충동성 그리고 인지 변인으로는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 정도가 심할수록 대학생의 문제음주 정도도 더 심하였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대학생의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검증 결과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에 주는 영향이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에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은 대학생 문제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보다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음주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양육이 문제음주로 가는 경로에 빠른 전략인 충동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구 가설과는 달리 충동성은 문제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대학생활에서의 음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득된 준비 모델에 기반한 대학생 음주연구는 충동적 성격특성이 개인의 학습과정에 차별적으로 준비되게끔 영향을 미쳐서 충동적이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충동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음주사용과 같은 위험행동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Corbin, Iwamoto, & Fromme,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충동성이 문제음주와 상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동성이 대학생활에서 음주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하여 문제음주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기의 부모양육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충동성은 높았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음주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였고, 이는 더 높은 문제음주를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 불확실한 환경이 개인으로 하여금 빠른 생애사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충동성과 문제음주가 증가한다는 생애사 이론(Daly & Wilson, 2005; Mittal & Griskevicius, 2014)과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과 같은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국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주연, 박성연, 1996).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은 충동성과 같은 개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고 형성된 부정적 성격변인은 부정적인 행동적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대학생 문제음주와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은 대학생활에 대한 음주인식이었다. 이는 선행 연구와도 일관되는 결과로(정슬기, 2006; Osberg, Billingsley, Eggert, & Insana, 2012)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가 문제음주를 설명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인임을 의미하며 음주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 문제음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문제음주에 대한 성차는 잘 알려져 있다(양난미, 2010; 정원철,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 모형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에서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변인 간 관계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부모양육과 충동성의 관계가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긍정적 양육과 충동성 감소의 정

적 관계가 남아에게만 나타났던 국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영옥, 홍지영, 김세루, 김권일, 2008). 본 연구는 양육의 온정적 측면에서 부모양육행동을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부모양육은 아동기에 경험한 비수용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 불안정 애착을 예측하는 부모행동과 유사한데(이지영, 손정락, 2010),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불안정 애착과 공격성, 품행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의 관계가 여아보다 남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Fearon, Bakermans-Kranenburg, Van IJzendoorn, Lapsley, & Roisman, 2010). 본 연구는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충동성 변인과 부정적 부모양육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였기에, 앞서 언급한 메타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남자 대학생에게서 변인 간 관련 강도가 더 강하게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기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충동성의 관계에서 성차를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성차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첫째, 생애사 이론과 획득된 준비 모델을 근거로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불안정한 아동기 환경, 빠른 생애사 전략으로서 충동성, 획득된 준비성으로서 음주 인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양육행동과 문제음주, 양육행동과 충동성, 충동성과 문제음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과 문제음주의 관계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 변인들의 구조를 환경, 성격, 인지, 행동으로 포괄하여 설명하는 논문은 없었다. 둘째, 그동안 충동성과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그 관계에서 대학생활에서의 음주인식이라는 매개변인의 측면을 다

루진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충동성에서 문제음주로 가는 경로에서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의 알코올 문제와 관련이 가장 큰 변인이 대학생활에 대한 음주 중요성 인식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불확실한 아동기환경의 지표로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설정해 충동성과의 정적 관계를 확인하여 부모 양육의 질이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상담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음주 문제가 있는 대학생 내담자를 상담할 때 부모양육 경험에 대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각된 아동기 경험 탐색을 통해 문제음주행동에 대한 자기이해를 돕고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와의 치유적 관계 형성을 통해 새로운 긍정적 관계 경험을 내담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내담자 상담 시 내담자의 충동성 조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들이 상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음주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센터에 내방한다면 상담사는 학생이 음주가 대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담에서는 대학생 내담자의 음주 중요성 인식을 낮추는 인지적 개입이 내담자의 문제음주행동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음주문화가 보다 안전하게 형성되도록 음주교육 및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생 문제음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예방적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것도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 부모의 양육은 대학생의 회상적 자기보고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설문 당시 연구 대상자의 기분이나 상황이 아동기 양육 경험 회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은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찰자가 아니라 자극을 선택, 분석 및 조직화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관점에서(Michaels, Messe, & Stollak, 1983) 연구대상자가 아동기의 부모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실의 정확도보다 사실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인식이 연구대상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점이 지지되었다(Gecas & Schwalbe, 1986).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회상적 보고의 한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충동성,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그리고 문제음주와의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생애사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기 불안정한 환경의 지표로 부정적 부모 양육을 살펴보았지만 부모양육은 개인이 성장할 때 경험하는 환경의 일부이다. 생애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아동기 불안정한 환경으로 경제적 지위, 부모양육, 지역환경, 부모 이혼, 사망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양육경험 외에 개인이 성장 중에 노출되는 다양한 환경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문제와 충동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관점인 생물학적 요인이(Babor et al., 1992; McGue, Pickens, & Svikiš 1992; Oquendo & Mann, 2000)

고려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문제음주와 충동성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불안정한 환경과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변인의 역할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을 구분하여 탐색하지 못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력이나 부모의 양육 불일치로 인한 영향 탐색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부모 각각이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Patock-Peckham & Morgan-Lopez, 2006)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부와 모의 부정적 양육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자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연극동아리 학생과 서울 시내 여대생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는 103명의 서울시내 한 대학의 여대생과 123명의 연극 동아리 여대생이 참여하였는데 대학의 동아리에 술을 더 허용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다. 춘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음주 비율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김윤선, 김복란, 2014).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연극 동아리 여대생의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t=5.55, p<.001$)과 문제음주($t=6.29, p<.001$)가 서울시내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가 대학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고려하더라도(최성범, 최종인, 2009)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통해 부정적 부모양육과 대학생 문제음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지연,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강철중, 김성곤, 김현경, 황인복, 변원탄 (2006). 한국인 남녀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의 알코올 대사 효소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2(1), 83-92.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기, 장승옥, 제갈정 (2006). 대학교의 환경적 특성이 음주폐해에 미친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3), 65-83.
- 김언주 (1988). 인지-정의 인과론에 관한 귀인론적 접근. *교육연구논총*, 9(1), 73-100.
-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05-228.
- 김윤선, 김복란 (2014). 춘천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3(6), 934-942.
- 김한나, 최윤신 (2015). 기혼여성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 원가족부모와의 애착, 우울의 구조적 관계. *임상사회사업연구*, 12(3), 1-23.
- 대한보건협회 (2012). 2012년 음주문제선별검사 지침서(audit-k 지침서). http://www.naam.or.kr/bbs/board.php?bo_table=data02&wr_id=100에서 인출.
- 박선영 (2009). 음주운전과 성격과의 관계에서 인지 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97-113.
- 배병렬 (2011). AMOS 19.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경현 (2003). 음주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61-78.
- 양난미 (2010). 성, 음주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문제 이해. *상담학연구*, 11(4), 1707-1727.
- 양난미 (2015). 한국판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41-61.
- 양모현, 류준범, 이경순 (2014). 대학(원)생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음주억제 및 충동성이 음주문제와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57-172.
- 이은숙, 봉은주 (2015).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4(3), 207-215.
- 이주연, 박성연 (1996).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또래수용과 인성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4(3), 21-34.
-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 관계에서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 임정아, 김명식 (2018).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3), 395-405.
- 정원철 (2006).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와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8(1), 347-372.
- 정슬기 (2006). 대학생의 한국음주문화에 대한

- 인식과 음주태도가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2), 1-16.
- 정슬기 (2008). 대학생의 우울증세, 성장기 스트레스 유발사건과 문제음주의 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13-134.
- 정준영 (2010). 대학문화 길들이기: 대학교 신입생환영회로 인한 사고와 언론. *사회와 역사*, 88, 79-114.
- 최성범, 최종인 (2009). 대학생의 동아리활동 참여유형과 여가정체성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1), 41-51.
-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남녀 대학생의 음주 문제 위험요인: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03-1019.
- 허심양, 오주용, 김지혜 (2012).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69-872.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Abar, C. C. (2012).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s and patterns of student alcohol-related behavior during the transition to colleg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6(1), 20-29.
- Anderson, B. J., Holmes, M. D., & Ostresh, E. (1999). Male and female delinquents' attachments and effects of attachments on severity of self-reported delinquenc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4), 435-452.
- Anderson, K. G., Smith, G. T., & Fischer, S. F. (2003). Women and acquired preparedness: Personality and learning implications for alcohol 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3), 384-392.
- Babor, T. F., Hofmann, M., Delboca, F. K., Hesselbrock, V., Meyer, R. E., Dolinsky, Z. S., & Rounsaville, B. (1992). Types of alcoholics, I. Evidence for an empirically derived typology based on indicators of vulnerability and severity. *Arch Gen Psychiatry* 49(8), 599-608.
- Barratt, E. S. (1959).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3), 191-198.
- Barnow, S., Schuckit, M. A., Lucht, M., Ulrich, J., & Freyberger, H. J. (2002). The importance of a positive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parental rejection and emotional warmth, behavioral problems and peer substance use for alcohol problems in teenagers: A path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3), 305-315.
- Barnow, S., Schultz, G., Lucht, M., Ulrich, I., Preuss, U. W., & Freyberger, H. J. (2004). Do alcohol expectancies and peer delinquency/substance us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drinking behaviour in adolescence? *Alcohol and Alcoholism*, 39(3), 213-219.
- Belsky, J., Houts, R. M., & Fearon, R. P. (2010). Infant attachment security and the timing of puberty: Testing an evolutionary hypothesis. *Psychological Science*, 21(9), 1195-1201.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ezkei, T., & Csanaky, A. (2001). Stressful family environment, mortality, and child socialization: Life-history strategies among adolescents and adults from unfavourable soci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6), 501-50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mbach, B. H., Figueredo, A. J., & Ellis, B. J. (2009). Effects of harsh and unpredictable environments in adolescence on development of life history strategies. *Human Nature, 20*(1), 25-51.
- Canter, R. J. (1982). Family correlate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Criminology, 20*(2), 149-168.
- Chen, E., & Miller, G. E. (2012). "Shift-and-persist" strategies: Why being low in socioeconomic status isn't always bad for health.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2), 135-158.
- Chisholm, J. S. (1993). Death, Hope, and Sex. *Current Anthropology, 34*(1), 1-24.
- Chisholm, J. S. (1999). Attachment and time preference: Relations between early stress and sexual behavior in a sample of American university women. *Human Nature, 10*(1), 51-83.
- Clark, T. T., Yang, C., McClernon, F. J., & Fuemmeler, B. F. (2015). Racial differences in parenting style typologies and heavy episodic drinking trajectories. *Health Psychology, 34*(7), 697-708.
- Corbin, W. R., Iwamoto, D. K., & Fromme, K. (2011). A comprehensive longitudinal test of the acquired preparedness model for alcohol use and related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72*(4), 602-61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ly, M., & Wilson, M. (2005). Carpe diem: Adaptation and devaluing the future.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80*(1), 55-60.
- Douglas, K. R., Chan, G., Gelernter, J., Arias, A. J., Anton, R. F., Weiss, R. D., ... & Kranzler, H. R. (2010). Adverse childhood events as risk factors for substance dependence: partial mediation by mood and anxiety disorders. *Addictive Behaviors, 35*(1), 7-13.
- Dube, S. R., Anda, R. F., Felitti, V. J., Edwards, V. J., & Croft, J. B. (2002).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personal alcohol abuse as an adult. *Addictive Behaviors, 27*(5), 713-725.
- Ellis, B. J. (2004). Timing of pubertal maturation in girls: an integrated life history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30*(6), 920-958.
- Ellis, B. J., Figueredo, A. J., Brumbach, B. H., & Schlomer, G. L. (2009). Fundamental dimensions of environmental risk. *Human Nature, 20*(2), 204-268.
- Eysenck, S. B., & Eysenck, H. J. (1978). Impulsiveness and venturesomeness: Their position in a dimensional system of personality

- description. *Psychological Reports*, 43(3), 1247-1255.
- Fearon, R. P., Bakermans-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Lapsley, A. M., & Roisman, G. I. (2010). The significance of insecure attachment and disorgan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a meta analytic study. *Child Development*, 81(2), 435-456.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37-46.
- Griskevicius, V., Ackerman, J. M., Cantú, S. M., Delton, A. W., Robertson, T. E., Simpson, J. A., ... & Tybur, J. M. (2013). When the economy falters, do people spend or save? Responses to resource scarcity depend on childhood environments. *Psychological Science*, 24(2), 197-205.
- Hingson, R. W., Heeren, T., Zakocs, R. C., Kopstein, A., & Wechsler, H. (2002). Magnitude of alcohol-related mortality and morbidity among US college students ages 18-24.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2), 136-144.
- Institute of Medicine (1990). *Broadening the base of treatment for alcohol problem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Kaplan, H. S., & Gangestad, S. W. (2005). Life history theory and evolutionary psychology. In D. M. Buss (Ed.),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New York, NY: Wiley.
- Lyvers, M., Duff, H., Basch, V., & Edwards, M. S. (2012). Rash impulsiveness and reward sensitivity in relation to risky drinking by university students: Potential roles of frontal systems. *Addictive Behaviors*, 37(8), 940-946.
- Masten, A. S., & Shaffer, A. (2006). How families matter in child development: Reflections from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A. Clarke-Stewart & J. Dunn (Eds.), *The Jacobs Foundation series on adolescence. Families count: Effects o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5-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D. M., Kroll, L. S., & Smith, G. T. (2001). Integrating disinhibition and learning risk for alcohol use.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9(4), 389-398.
- McGue, M., Pickens, R. W., & Svikis, D. S. (1992). Sex and age effects on the inheritance of alcohol problems: a twin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3-17.
- Michaels, G. Y., Messe, L. A., & Stollak, G. E. (1983). Seeing parental behavior through different eyes: Exploring the importance of person perception processes in parents and childre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7(1), 3-60.
- Mittal, C., & Griskevicius, V. (2014). Sense of control under uncertainty depends on people's childhood environment: A life history theory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4), 621-637.
- Nesse, R. M. (2002). Evolution and addiction. *Addiction*, 97(4), 470-471.
- O'Neill, S. E., Parra, G. R., & Sher, K. J. (2001). Clinical relevance of heavy drinking during the college years: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perspectiv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350-359.

- Oquendo, M. A., & Mann, J. J. (2000). The biology of impulsivity and suicidality. *Psychiatric Clinics*, 23(1), 11-25.
- Osberg, T. M., Atkins, L., Buchholz, L., Shirshova, V., Swiantek, A., Whitley, J., ... & Oquendo, N.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lcohol salience scale: A measure of beliefs about the role of alcohol in college lif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4(1), 1-12.
- Osberg, T. M., Billingsley, K., Eggert, M., & Insana, M. (2012). From animal house to old school: A multiple mediat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ollege drinking movie exposure and freshman drinking and its consequences. *Addictive Behaviors*, 37(8), 922-930.
- Patock-Peckham, J. A., & Morgan-Lopez, A. A. (2006). College drinking behaviors: mediational links between parenting styles, impulse control, and alcohol-related outcom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0(2), 117-125.
- Patock-Peckham, J. A., & Morgan-Lopez, A. A. (2007). College drinking behaviors: Mediational links between parenting styles, parental bonds, depression, and alcohol proble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1(3), 297-306.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6), 768-774.
- Roff, D. A. (1992). *The evolution of life histories: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Chapman and Hall.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3), 245-260.
- Schofield, T. J., Toro, R. I., Parke, R. D., Cookston, J. T., Fabricius, W. V., & Coltrane, S. (2017). Parenting and later substance use among Mexican-origin youth: Moderation by preference for a common language. *Developmental Psychology*, 53(4), 778-78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ith, G. T., & Anderson, K. G. (2001). Personality and learning factors combine to create risk for adolescent problem drinking: A model and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In P. M. Monti, S. M. Colby, & T. A. O'Leary (Eds.), *Adolescents, alcohol, and substance abuse: Reaching teens through brief interventions* (pp. 109-141). New York, NY: Guilford Press.
- Stearns, S. (1992). *The evolution of life histo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arolina Population Center.
- Wesch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B., & Castillo, S.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21), 1672-1677.

1차원고접수 : 2018.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5. 18.

최종게재결정 : 2018. 06. 01.

Adverse Parenting Experiences and College Students' Problematic Drinking: Impulsivity and Perceived Importance of Drinking in College as Mediators

Ji Hye Park

Kyoung Ok Seol

Ji He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n integrated model of college students' problematic drinking based on Life History Theory and the Acquired Preparation Model. We hypothesized that adverse parenting experiences in childhood would promote fast life strategies, which promote the development of impulsivity. Impulsivity would lead to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drinking in college, which in turn predicts the increase in problematic drinking. In this study, 365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We found that adverse parenting in childhood predicted college students' problematic drinking. As hypothesized, this link was mediated by impulsivity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drinking in college. We also tested whether this model would differ by gender. The result of the multiple 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is mediation model.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parenting experiences and impulsivity was stronger among males. Implications for alcohol related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and the development of an alcohol abuse prevention program were discussed.

Key words : *adverse parenting, problematic drinking, college students, life history theory, acquired preparation model*